

신안 압해중학교 일일 기자체험



신안 압해중 1일학생기자단은 지난 18일 오후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무각사 로터스갤러리를 방문해 현장취재 했다.

# 해외 우수 미술관과 80년 광주 아픔 그린다

###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파빌리온 프로젝트 참여 작가 전시...공간 확대 눈길

무각사 로터스갤러리가 지역 대표 미술 갤러리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무각사 로터스갤러리는 최근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해 파빌리온 프로젝트 전시를 벌여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신안교육지원청 주최로 열린 '기자'와 함께 하는 진로·직업체험 캠프'에 나선 신안 압해중 1일 학생기자단은 지난 18일 오후 광주상무지구에 위치한 무각사 로터스갤러리를 방문해 현장취재했다. 이곳에서는 오는 11월11일까지 진행되는 광주비엔날레와 연계된 파빌리온 프로젝트 중 하나인 핀란드 헬싱키 국제 아티스트 프로그램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다. 이 자리에는 핀란드와 한국 작가 5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헬싱키의 대표적인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지난 1998년 설립된 비영리 예술가 연합으로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와 현재, 개인과 집단, 미적 시선과 거시적 시선까지 전시공간인 무각사의 환경과 어울려 상호 의존성과 연속체로서의 가치를 보여준다. 학생기자단도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하며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작품 의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각사 로터스갤러리는 1층에 엘리나 바이니오와 이매리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핀란드 헬싱키 출신 엘리나 바이니오는 과거, 현재, 미래의 문명에 대한 인식을 담은 대형 모래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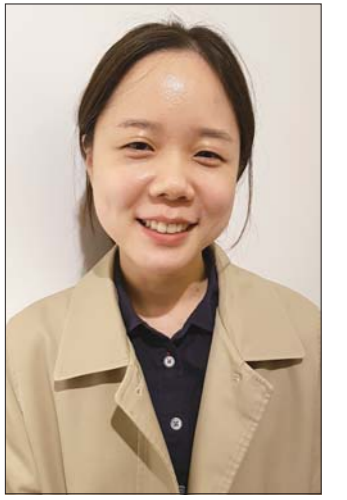
또 추상과 구상을 오가는 사물 형태가 모래의 거친 표면 위에서 시각화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작품은 전시 공간 인근에서 가져온 모래가 활용되며, 전시가 끝나면 본래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매리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지중의 시간'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중인 5·18민주화운동 당시 아픔을 작품으로 승화해 그려내고 있다. 로터스 갤러리는 이번 비엔날레 전시를 위해 지하 1층 공간을 확대개편했다. 이곳에서는 헬싱키 기반의작가네스토리 수르알라와 엘리나 바이니오, 이매리 작가 등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다. 네스토리 수르알라는 자동차 유리창과 바위 등을 통해 인간 활동이 세계 기후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한다. 두 바위 사이

에 끼워진 자동차 유리 여러 점으로 구성된 조각 설치 작품은 인간이 초래한 환경 변화 상황을 형상화한다. 이매리 작가는 '관절 척추 마다 마다 낄'이라는 작품에서 강철 구조물과 실리온 표면, 윤활유와 같이 상반된 촉감을 지닌 흙이러 물체들로 이뤄진 심미적 혼합물을 전시한다. 갤러리 관계자는 "무각사 로터스갤러리가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파빌리온 프로젝트 일환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핀란드 헬싱키 국제 아티스트 프로그램과 5월 광주 정신과 아픔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갤러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정·조시환·박기은·윤다예·임영지·정성민·정다혜·천은빈·백선우기자

## “다양한 전시 기획...열린 미술관 주력”

이현민 도슨트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가 지역 대표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기획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전시 해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민(29) 도슨트. 그는 로터스 갤러리가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해 파빌리온 프로젝트 작품을 전시하며 확장 오픈한 이후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미술전문가다. 그는 대학에서 미술이 아닌 경영을 전공했지만 미술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도슨트로 활동하며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그는 “미술 전공이 아니지만 미술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 전문 도슨트로 근무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며 “갤러리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미술 작품을 설명하는 일이 보람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열린 갤러리가지만 간혹 작품 관람에 대한 예의가 잘 지켜지지 않아 작품이 손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다수가 함께 즐기는 갤러리인 만큼 타인을 배려하고 작품을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로터스 갤러리가 무료로 운영



돼 지역민들이 대거 찾고 있다”며 “광주비엔날레가 시작된 이후 하루 평균 30여명이 관람객이 찾고 있고, 지난 한달 동안에는 1천여명이 찾아 남다른 미술 갤러리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기자단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대학에서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취미 등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늘리면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가능하다”며 “학생기자단도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잘 살려 즐겁고 보람있는 일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서현·박근혜·정시은기자

## “학생 때부터 시력 중요성 깨닫길”

유재환 광주안과 기획실 직원

“어릴 때부터 휴대폰을 많이 접하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나빠진 시력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학생때부터 시력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재환 광주안과 기획실 직원은 18일 신안 압해중 학생기자단에게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좋아질 수 없는데 학생들이 책을 오랫동안 보거나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오래 보면서 안경을 쓰는 학생들이 늘어나 안타깝다”며 “특히 학생들의 시력이 더 악화되는 원인은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이나 책을 읽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가끔 먼 곳을 보면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책이나 휴대폰을 볼 때는 주변을 밝게 해야 한다”고 “특히 안경이 귀찮다며 렌즈를 착용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렌즈는 각막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각막이 손상될 수 있고 쉽게 건조해진다”고 조언했다. 유 씨는 “만 19세 이상이면 눈 성장이 멈춰,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 교정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20세 즈음 시력 교정수술을 받



면 노안이 오기 전까지 밝은 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 씨는 시력교정술에 라식과 라섹, 안내렌즈삽입술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내렌즈삽입술이 라식·라섹 수술보다 더 비싸지만 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 씨는 “많은 학생들이 시력 교정 수술이 아프다는 생각에 무서워하는데, 라식의 경우 수술 시간도 10분 이내로 짧을 뿐 아니라 통증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곽재은·박한별·백소영·이기은·이성주·천인혜기자

## 광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안전한 안과

### 광주안과, 22년동안 수술 사고 단 한차례도 없어

안과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광주안과 병원은 22년전,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안과 전문 병원이다. 특히 지난 2013년 3D스마일 수술 도입 이후 최근까지 1만 이상 달성,호남지역 안과 중 가장 많은 스마일3D수술을 기록한 안과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 무엇보다 22년간 안과 수술을 하면서 단 한건의 의료사고도 없는 병원으로 유명하다. 신안 압해중학교 학생기자단은 지난 18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안과병원을 찾았다. 광주안과는 개원 이후 22년 동안 동구 학동에서 환자를 맞고 있으며, 지난 2014년 광천동에 신세계점도 개원했다. 건물 외관에 많은 동그라미가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이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등 69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다. 광주안과는 건물의 5층부터 8층까지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5층은 회의실, 6층은 수술실과 입원실, 수술실은 백내장 등 수술 대상 환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이와함께 7층에는 접수실, 시력교정실, 시력검사실 등이 자리하고 있다. 8층에는 라식과 라섹검사실, 교정실, 진료실, 수술실 등이 갖춰져 있다. 광주안과가 자랑하는 스마일 수술은 각막을 절개하는 부분이 라식 수술보다 현격히 줄어들어 안구건조증이 낮아졌고,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아 외부 충격에 강하다. 또 각막손상이 적으며 수술 후 통증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수술을 받았다.



광주안과는 각 공간별로 환자가 병원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최종 진료와 처방까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형태로 설계돼 있는 것이 주된 특성이다. 병원 동선과 실내 구조도 환자들이 지루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실내 인테리어는 물론 의료기기 등 최첨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안과 기획실에 근무하는 유재환씨는

“광주안과는 근시나 난시 등 시력이 약화된 사람들 뿐 아니라 녹내장과 백내장, 당뇨병 합병증 등으로 각종 안질환에 걸린 다양한 연령층의 환자들을 위한 전문병원”이라며 “눈에 관련된 모든 질환을 치료하고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이 내집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하·김서희·박수빈·박주은·박태희·양미라기자

## “놀면서 성장하는 공유센터 만들 터”

김영숙 자원봉사자

“여러 종류의 장난감을 만지고 노는 것도 영유아들에게는 다양한 체험이 학습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광주시청 내 희망장난감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영숙(51·여)씨는 18일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먼저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모들이 많은 돈 안들이고 다양한 장난감 대여해서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게 한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다”며 “다만 대여 중 장난감이 파손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곤란할 때가 많다. 운영방침에 따라 동일 장난감 대여가 3주로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영유아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영유아들은 여행이나 체험을 통해 많은 성장을 한다”며 “많은 장난감을 만지고 보고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자능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학



습한다’는 말처럼 이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많이 접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안압해중 학생기자단은 “아이들은 장난감을 만지고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장난감도서관의 사례처럼 ‘공유’ 정신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사회 발전에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정부가 이런 영유아 지원 시설을 늘려서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준영·김소영·박수빈·김진순·윤재민·이성준기자

## “비싼 장난감 이제 빌리세요”

### 광주시청 희망장난감도서관 ‘인기’

만만치 않은 장난감 가격은 부모들을 부담스럽게 한다. 비싼 돈을 들여 사줘도 잠깐 갖고 놀다 마는 아이들로 인해 섀트 장난감을 구입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같은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곳이 광주시청 내 희망장난감도서관이다. 신안압해중 1일 기자단은 지난 18일 광주시청 입구 바로 옆에 있는 희망장난감도서관을 방문했다. 유아용 자동차, 미끄럼틀, 공놀이 장난감 등 놀이 가득한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작고 저렴한 제품에서부터 고가로 보이는 장난감도 많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알차게 채워진 모습이다. 대여, 가입 등을 문의하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장난감을 구입하는 대신 대여해 아이의 육구를 채워주면서도 비용은 아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게 이곳 자원봉사자의 설명이다. 이곳은 2015년 7월 광주시, 신세계그룹,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시자원봉사센터가 협약, 설립됐다. 평소 운영 및 인내는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담당하고 있다. 대여 문의에서부터 장난감 설명까지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하루 평균 40~50명이 찾으며 1년에 3만 원만 내고 연회원으로 등록하면 최대 2주 동안 무료로 장난감을 빌릴 수 있다. 저소득층과 차상위권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도서관 내 자유놀이방은 5세 이하 유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1회 1시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이용인원은 보호자를 포함해 15명이다. 광주에는 이같은 장난감 도서관 8곳이 운영 중이다. 김주성·배상규·이백만·정용·정찬민·김신우기자